

| | | | |
|---|---------------|----------------|--|
|  | <h1>보도자료</h1> | 2017. 4. 14(금) | |
| | | 작성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기획과제과 과장 서영석 / 사무관 이희완 (Tel. 044-200-2438) |
| |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과장 한상배 / 사무관 김홍태 (Tel. 043-719-2011) |
| <p>* 엠바고 : 4.14(금) 10:00 이후 사용 # 공동배포 : 식품의약품안전처</p> | | | |

연내 푸드트럭 600대 이상 운영한다.

- 올해 3월 합법화 3년을 맞은 푸드트럭 448대(17.3월)까지 증가
- 푸드트럭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모델 시도 등 질적 변화도 나타남
- 이동영업 활성화, 수익성 있는 영업장소 확대 공급은 보완되어야 할 과제

< 주요내용 >

-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3월로 합법화 3년을 맞는 푸드트럭이 전국적으로 448대까지 증가함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268대로 전체 절반(60%) 넘게 차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남(63대, 14%)이 두각을 나타냄
 - 운영자 연령대는 20대~30대가 전체의 65%(292대)를 차지함
 - 국무조정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푸드트럭 도입 계획을 조사한 결과, 204대의 푸드트럭이 추가 도입되어 연내에 전국적으로 650여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푸드트럭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도 되는 등 질적 변화 조짐도 나타남
 - 서울시 주관 '서울 밤도깨비 축제'는 지역축제와 푸드트럭이 결합하여 지역 명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높은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됨
- 푸드트럭의 지속적 성장추세와 긍정적 전망에도 이동영업 활성화,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영업장소 발굴·보급 등은 보완되어야 할 과제임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각 지자체, 사업자 등과 지속적 협업과 소통을 통해 푸드트럭이 국민의 건강과 공공질서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3월로 합법화 3년을 맞는 푸드트럭이 전국적으로 448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적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268대로 전체의 절반(60%)을 넘게 차지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남(63대, 14%)이 두각을 나타낸 반면 호남, 충청권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 참고1>
 - 운영자 연령대는 20대~30대가 전체의 65%(292대)를 차지하여 푸드트럭이 청년창업 아이템으로서 주목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푸드트럭 합법화는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차량 개조 사업가의 건의를 현장에서 수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 합법화 초기에는 영업장소가 유원시설로만 한정되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이해도도 낮아 한동안 한 대의 합법 푸드트럭도 도입되지 못하는 등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 이후 정부는 사업자, 관련 지자체 등과 소통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영업장소 확대 △이동영업 허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자체 독려 등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상세 참고2>

【주요 푸드트럭 규제개선 사항】

- ① (영업장소 확대) 유원시설→ 도시공원, 관광단지, 줄임쉼터, 공용재산 등 8개소 및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15.10)
- ② (이동영업 허용)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16.7)
- ③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이동영업의 경우 추가서류 없이 기존 신고증으로 대체, 온라인 영업신고 가능 등
- ④ (지자체 독려) 지자체 대상 순회 설명회(8회), 팸투어(2회), 지자체 평가 지표 반영

- 그 결과, 2015년 3월 3대에 불과하였던 합법 푸드트럭이 2년만에 448대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 또한 푸드트럭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도 되는 등 질적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상세 참고3>

- 올해 3년째를 맞는 서울시 주관 ‘서울 밤도깨비 축제’는 지역축제와 문화공연, 푸드트럭이 결합하여 지역 명물로 자리 잡고 있으며
 - * ('15년) 30대 → ('16년) 102대 → ('17년) 132대로 규모 증가 및 안정적 매출로 호평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졸음쉼터(14개소) 또한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청년 창업자에게 저렴하게 푸드트럭을 임대하여 부담을 줄였고, 안정적 매출로 자립 기반이 되고 있다.
 - * 최대 2년간 푸드트럭 사용료(월 10만원)와 장소 임대료(매출액1~3%)로 푸드트럭 운영가능, 日매출 35~95만원 수준
- 서초구는 푸드트럭으로 기존 노점상을 대체하면서 강남대로 주변 4곳을 푸드트럭 존으로 지정, 푸드트럭이 이동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영업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 수원시는 남문시장 근처 차 없는 거리에 푸드 트레일러를 도입·임대하여 청년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층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푸드트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연계 추진하고 있다.

< 푸드트럭의 다양한 사업유형 >

| 구 분 | 주요 특징 | 성과 및 기대효과 |
|--------------------------------|---|---|
| 축제결합형 (서울 밤도깨비축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축제와 푸드트럭이 결합한 새로운 모델 ■ 3~10월 중 주말(금.토요일) 야간시간 영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명품축제 안착(15년~) ■ 지자체 푸드트럭 수범사례 |
| 청년창업 지원형 (고속도로 졸음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에게 푸드트럭 임대*하여 창업기회 제공 * 푸드트럭 월 사용료(10만원) + 장소 임대료(매출 1~3%) ■ 2년간 안정적 영업기회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매출*로 청년창업자 종잣돈 마련 기회 제공 * 월 15백만원 내외 매출 |
| 노점상 대체형 (서초구 이동영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남역 인근 불법 노점상을 합법 푸드트럭으로 전환, 외관·위생 등 향상 ■ 순환 이동영업 시범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영업 확산 계기 ■ 불법 노점상을 합법 푸드트럭으로 전환하는 비전 제시 |
| 전통시장 상생형 (수원남문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창업자에게 푸드트레일러 임대* 제공 * 푸드트럭 보증금(1백만원) + 상인회비(월 20만원) ■ 비교적 한가한 야간시간에 전통시장에서 영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에 젊은 층을 끌어 들여 시장활성화 촉진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

- 한편, 국무조정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푸드트럭 도입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말까지 204대의 푸드트럭이 추가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650여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세 참고4>
-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현재 268대에서 384여대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비수도권지역**도 현재 180대에서 268여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확대(102대→132대), 수원 화성행궁 푸드트럭 존(30여대) 등
 - ** 전북 군산 내항(20여대), 제주 서귀포(20여대), 대구 중구 하천변(16여대)
- 다만, 푸드트럭의 지속적 성장추세와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과제는 있다.
 - 먼저, 이동영업 자체는 이미 합법화(‘16.7) 되었으나 아직 활성화 되지는 못한 상황으로 서울 서초구, 수원시 등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타 지자체까지 이동영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안정적 수익이 가능한 영업장소 발굴과 보급을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 및 사업자가 협업하여 지역축제, 전통시장 등과 연계한 사업모델 등을 지속 발굴·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각 지자체, 사업자 등과 지속적 협업과 소통을 통해 푸드트럭이 국민의 건강과 공공질서를 지키면서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 (붙임) 1. 푸드트럭 현황
 2. 푸드트럭 규제개선 및 활성화 추진현황
 3. 지자체의 푸드트럭 도입 우수 사례
 4. 2017년 푸드트럭 확대 계획 (전망)
 5. 푸드트럭 주요쟁점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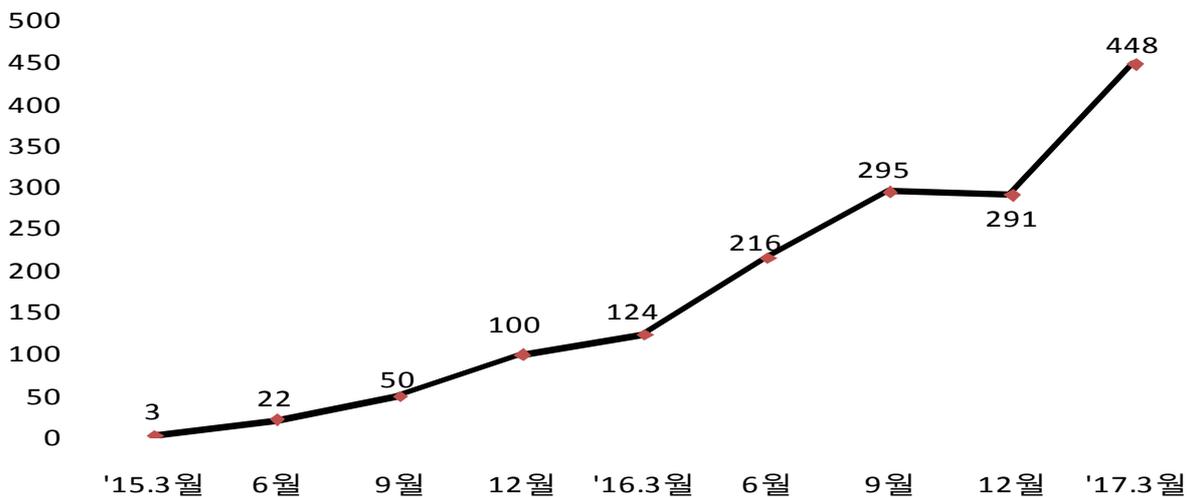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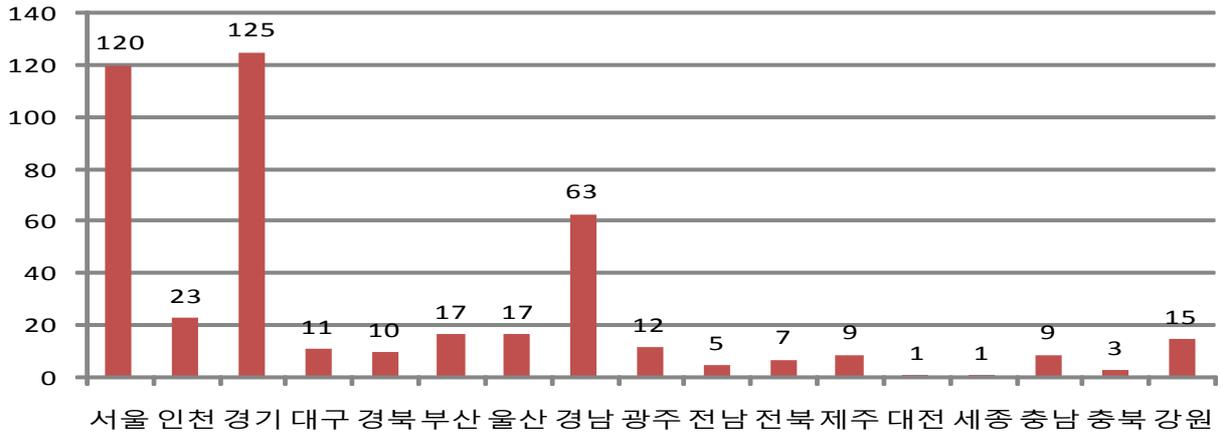
참고 1

푸드트럭 현황

□ 푸드트럭 영업 현황 ('17.3월말 기준)

○ 지역별 현황

(단위 : 대)



□ **제도 개선**

- (푸드트럭 개조)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개조 근거* 마련('14.8월)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국토부)
 - **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제정(산업부 고시)

- (영업구역 확대) 유원시설에서 시작하여 영업가능구역 지속 확대
 - '15.10월부터 지자체에서 조례로 영업장소를 정하도록 자율권 부여

* 푸드트럭 영업가능구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2014년 : (8.18) 유원시설, (10.22) 도시공원·하천부지·관광(단지)체육시설
- 2015년 : (5.27) 대학, (7.21) 고속국도졸음쉼터, (10.21) 국가·지자체 공용재산 및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

- (이동영업 허용) 지자체 행정재산에 대해 푸드트럭 영업자와 계약시 일수별·시간대별로 계약 가능하도록 허용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16.7월
- (영업신고 간소화)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추가하여 이동영업하는 경우, 위생교육 이수증 등 서류 없이 기존 영업신고증으로 대체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6.7월

□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

- (지자체 독려) 지자체 공무원 교육 및 팸투어('15.7월, '16.9월), 지방 규제개혁 평가지표에 푸드트럭 실적 반영('15년, '16년)
 - 이동영업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16.12월~, 수원시, 서초구)
 - * 규제개혁단장 회의('15.2월,6월), 지자체 부기관장회의('15.11월), 전국순회설명회('15.11월, '16.10월), 축제담당자 워크샵('16.3월) 등에서 협조 요청
- (온라인 영업신고) 푸드트럭 온라인 영업신고체계 구축(민원24, '16.9.30) 및 합법 푸드트럭 로고 배포('16.11월)
- (위생점검) 식약처, 지자체 공동으로 매년 식품위생·안전 점검
 - * 1차('15.10월), 2차('16.3월), 3차('17.3월)

참고 3

지자체의 푸드트럭 도입 우수 사례

□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국내 대표적인 푸드트럭 행사>>



'15년 10월 여의도 한강공원을 시작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청계천 △반포 한강공원에 '밤도깨비 야시장' 개설하여, '15년 30여대, '16년 102대 푸드트럭이 참여하여 높은 매출을 달성. 금년은 3.24~10.29 기간중 132대 푸드트럭이 매주 금·토요일(청계천은 토·일요일)에 4곳에서 순환이동(4주내외 간격)하여 영업중

* 영업장소 : 여의도 한강공원(42대), DDP(30대), 청계천(30대), 반포 한강공원(30대)

** '16년 행사참여 푸드트럭은 日 평균 150만원 내외 매출 발생

□ 수원남문시장 푸드트럭 존 <<푸드트럭과 기존 상권의 상생모델>>



'17.1월부터 경기도와 수원시가 18대 푸드트레일러를 창업 희망 청년에게 임대 하고, 수원남문시장 인근 9개시장과 연합하여 전통시장 내(지동교 및 차 없는 거리) 에서 야간(17시~22시)에 영업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자들은 시장 상인 회원이 되어 보증금 100만원과 매월 20만원의 상인회비로 지급하고 영업함.

청년에게는 초기 투자없이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은 젊은 층을 끌어들여 시장 활성화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존 중 가장 높은 매출 실현》**



<졸음쉼터 푸드트럭>



<출처 : 채널A-TV 서민갑부>

도로공사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졸음쉼터 14곳에 푸드트럭을 설치하고 최대 2년기간 내에 월 10만원 푸드트럭 사용료와 장소 임대료(매출액 2% 내외)를 받고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게 함. 졸음쉼터의 푸드트럭 日 평균 매출액은 35~95만원 수준으로 매우 높아 다수 언론에서 우수 사례로 보도

<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운영현황 >

□ **추진경과**

- 1차('15.8~9월) : 서울외곽선 졸음쉼터 등 6개소
- 2차('15.12월) : 서해안선(2), 경부선(1), 영동선(1)
- 3차('16.7월) : 경부선(3), 남해선(1)

□ **지원대상 : 20세~35세 청년 실업자**

□ **운영현황**

- 푸드트럭 운영 전(前) 창업자 교육
- 매월 푸드트럭 사용료(10만원) + 장소 임대료(매출액 1~3%) 납부 (초기 6개월 면제)
- 계약기간(1년) 종료후 평가하여 일정수준 이상 운영자는 기간 1년 연장

□ **운영현황 : 6개 노선, 14대 운영**

| 쉼터명 | 서울외곽(6) | | | | | | 서해안선(2) | |
|-----|------------|------------|------------|------------|------------|------------|-------------|-------------|
| | 성남 (외측) | 청계 (외측) | 시흥 (내측) | 시흥 (외측) | 김포 (내측) | 김포 (외측) | 서서울 (서울) | 서서울 (목포) |
| 운영일 | '17.2.27 | '15.8.20 | '16.7.1 | '15.8.27 | '17.2.23 | '15.12.16 | '15.12.16 | '15.12.16 |

| 쉼터명 | 영동선(1) | 경부선(3) | | | 남해선(1) | 제2중부선(1) |
|-----|------------|------------|------------|------------|------------|-------------|
| | 이목 (강릉) | 오산 (서울) | 검단 (부산) | 검단 (서울) | 지수 (부산) | 상변천 (통영) |
| 운영일 | '15.12.16 | '16.7.1 | '16.7.1 | '16.7.1 | '16.7.1 | '16.10.10 |

□ **매출액 : 푸드트럭당 일평균 503천원 (월 15백만원 내외)**

□ 서초구 이동영업 운영 ≪이동영업 시범운영으로 확산 계기 마련≫



<강남역 9,10번 출구>



<강남 지오다노 옆>

서초구는 불법 노점으로 몸살을 앓던 강남대로 주변의 4곳을 푸드트럭 존으로 지정하고 25대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특히, '16.10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4곳을 푸드트럭들이 순환 이동하도록 방식을 처음 도입함.

'17.3월 3곳의 장소에서 16대가 영업중이며, 나머지 8대는 기존의 불법 노점상을 합법 푸드트럭으로 전환 추진 예정

* 도입계획 : 강남 지오다노 옆(5대), 서초초등학교 옆(5대), 강남역 9.10번출구(10대), 강남역 7.8번출구(5대)

** 이동영업 : 푸드트럭 영업장소에 일련 번호를 부여하여 1일 단위로 순차 이동영업

< 서울 서초구 이동영업계획 지도(예시) >



* 강남역 7.8번 출구는 현재 공사 중이며 하반기 중 영업 가능

참고 4

2017년 푸드트럭 확대 계획 (전망)

* 출처 : 2017년 광역시·도의 푸드트럭 확대계획 조사('17.3월, 국무조정실)
 <각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푸드트럭 확대)** '17.3월 실시한 전국 지자체 대상의 '2017년 푸드트럭 확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년 중 600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서울) 서울밤도깨비 야시장축제*를 이동영업 방식으로 변경하여 확대 추진('16년 102대→'17년 132대)
 - * 여의도한강공원, DDP, 청계천, 반포한강공원의 4곳에서 3.24.~10월까지 영업하고 있으며, 4개 장소를 순차적으로 이동영업하는 방식으로 운영
 - 특히, 금년에는 자치구로부터 '푸드트럭 시범거리 조성' 신청을 받아 선정된 자치구에 대해 보조금 교부('17년 총 1.6억원 편성)
 - (경기) 화성행궁에 푸드트럭 존 설치하여 30여대 도입(4~11월) 예정
 - 금년초 수원남문시장에서 야간시간에 18대 푸드트레일러* 영업중
 - * 경기도, 수원시에서 푸드트레일러를 직접 구입하여 청년영업자에게 임대
 - (전북) 군산 내항 주변에 푸드트레일러 20여대 설치(6~8월) 예정

< 2017년 푸드트럭 확대 계획(누적) >

(단위 : 대)

| 구 분 | 수도권 | | | 경상권 | | | | 호남·제주권 | | | | 충청·강원권 | | | | 총 계 | | |
|---------|-----|----|-----|-----|----|----|----|--------|----|----|----|--------|----|----|----|-----|----|-----|
| | 서울 | 인천 | 경기 | 대구 | 경북 | 부산 | 울산 | 경남 | 광주 | 전남 | 전북 | 제주 | 대전 | 세종 | 충남 | | 충북 | 강원 |
| '17.3월말 | 120 | 23 | 125 | 11 | 10 | 17 | 17 | 63 | 12 | 5 | 7 | 9 | 1 | 1 | 9 | 3 | 15 | 448 |
| 2017년 | 200 | 34 | 150 | 30 | 22 | 20 | 15 | 64 | 13 | 9 | 20 | 35 | 6 | 2 | 10 | 5 | 17 | 652 |

- **(지역축제 푸드트럭 도입)** 금년 지자체 축제에 푸드트럭 도입이 크게 확대되어, 지역축제의 새로운 트렌드로 정착되는 추세
 - ('16년) 96개 축제 614대 ⇒ ('17년) 206개 축제 1,544대
 - 특히, 서울시, 세종시의 푸드트럭 축제의 성공적 영향으로 경기, 대구, 울산 등의 지역 축제에 대규모 푸드트럭 도입 예정
 - * 화성행궁 푸드트럭페스티벌(4~11월, 35대), 컬러풀 대구페스티벌(5월, 35대), 울산 푸드트럭 페스티벌(7월, 70대) 등 신규 도입 예정

① 정부에서 푸드트럭 2000대 도입을 목표하였으나, 당초 기대에 미달?

⇒ 정부는 푸드트럭 도입 목표를 정하거나 경제적 효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없음

- 다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민간 실무직원이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전국 유원시설 규모를 근거로 예측한 수치임

* 당시 푸드트럭 도입의사가 있던 A 유원시설의 도입예정 푸드트럭 대수를 바탕으로 전국 유원시설 현황을 대입하여 도입가능 대수 추정
 - (종합유원 37곳×30대) + (일반유원 208곳×5대) + (기타유원 110곳×1대) = 2,260대

② 푸드트럭의 합법 영업장소가 부족하여 추가 규제 개선 필요?

⇒ 푸드트럭 영업장소는 '15.10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체육시설, 하천 등 8개 구역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로 영업장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등은 푸드트럭 확대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기존 상권과 갈등 등을 우려하여 영업장소 확대에 소극적으로 대응
- 행자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자체에서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음

* 설명회, 교육, 지자체 평가 반영 등을 통해 지자체의 푸드트럭 확대 독려

③ 푸드트럭에서도 주류판매 허용 필요?

⇒ 푸드트럭 주류 판매 허용은 신중할 필요

- 당초 푸드트럭은 공공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이 거리에서 음식을 쉽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휴게음식점업' 또는 '제과점업'으로 업종을 한정하였음
- 또한, 많은 푸드트럭들이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유원시설, 체육공원, 하천 등의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어 주류판매 허용은 신중한 검토 필요

4 유독 푸드트럭 폐업률이 높다?

⇒ 그간 영업신고한 푸드트럭은 총 874대(중복 제외)이며, 이 중 '17.3월말 영업 중인 푸드트럭은 448대(51%)로 파악

- 푸드트럭 2년 생존률은 37%이며, 유사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2년 생존율 39%(14년 기업생멸행정통계, 통계청)와 유사한 수준

< 푸드트럭 생존율 >

| 구 분 | 생존업체(㉠) | 영업신고업체(㉡) | 생존율(㉠/㉡) |
|----------------------|---------|-----------|----------|
| 창업 2년 업체 ('14년~'15년) | 48대 | 131대 | 37% |

5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한 차량 중 70%는 영업을 하지 않는 유령트럭?

⇒ 구조변경 트럭 중 상당수는 현재 불법 영업 중일 것으로 추정

- 푸드트럭 구조변경 차량은 1,500대이나, 현재 합법적으로 영업중인 트럭은 448대(30%) 수준이어서, 나머지 1,000여대(70%) 모두가 폐업한 것으로 오해 가능

- 하지만 이 중 대다수 차량은 구조변경만 합법으로 하고 적법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유형별 분포 : 합법영업(448대), 합법영업 경력이 있는 푸드트럭(369대), 한 번도 합법영업 경력이 없는 푸드트럭(683대)

- 제도 시행 초기 일부에서는 영업신고증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구조변경을 허가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 이럴 경우 불법 구조변경을 조장하고, 이로 인해 최소한의 차량 안전성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영업신고'와 '구조변경'을 연계시키지는 않았음

- 향후 불법 푸드트럭의 합법화를 위해 △영업장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창업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등의 방안 추진 예정